

2011. 1
www.worldview.or.kr

CHURCH & MISSION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경산 은혜로교회

NEWS IN BIBLE

2011년 경제전망과 그리스도인의 자세
공정과 상생
KORUS FTA 추가협상, 외통수였나?
연평도 포격사건, 어떻게 대응할까?

CULTURE

기독교 세계관, 미술의 지평을 열다
정통 교회음악을 고집하는 서울바하합창단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ASSOCIATION OF CHRISTIAN WORLDVIEW STUDIES

SAMSUNG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Tab하게
될 것이다!

슈퍼미디어 GALAXY Tab

읽고 보고 듣고 찾고 통화한다 Life is Tab! Tab! Tab!

- e-Reading 8만권의 도서, 8종의 신문/잡지, 100여종의 만화, 연구보고서, 전문지를 Tab하다
- e-Learning 전자사전, 유명강사의 동영상 강의, 교과서를 Tab하다
- Multimedia 카메라, 지상파 DMB, VOD서비스, 3D게임을 Tab하다
- Utility 아이나비 3D 내비게이션, 디지털 액자, 여행가이드북을 Tab하다
- Smart work 탭만의 음성/영상통화, 문서 수정, PC처럼 인터넷을 Tab하다

QR코드로 즐기는,
“컬투와 함께하는 택시”

www.tabtaxi.com에서 18개의 택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Samsung
Anycall

contents

worldview

JANUARY 2011 VOL.127

발행인_손봉호

편집인_김승욱

편집_차명실

편집위원_ 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종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출판위원_유정철, 김승태, 김건주

교정, 교열_김성혜, 김하영, 김아리나

제작_한국학술정보

표지사진_장유진

주소_140-909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대표전화_02-754-8004

팩스_0303-0272-4967

E-mail_(사무국)info@worldview.or.kr

(학회)gihakyun@daum.net

Homepage_www.worldview.or.kr

CHURCH & MISSION

04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_황성건

08 PAUA란 무엇인가_원성욱

CULTURE

12 기독교 세계관, 미술의 지평을 열다(1)_오의석

NEWS IN BIBLE

16 2011년 경제전망과 크리스천의 자세_김승욱

18 무상급식, 어떻게 볼 것인가?_조성봉

20 공정과 상생_한정화

24 KORUS FTA 추가협상, 외통수였나?_김태황

28 연평도 포격사건, 어떻게 대응할까?_서경석

WORLDVIEW COLUM

34 신학적 변혁, 새 시대 새 교회_김의원

RELATION

38 서번트 리더십의 현장_김원수

42 정통 교회음악을 고집하는 서울바하합창단

WORLDVIEW NEWS

44 활동보고와 회원소식

46 회비 및 후원안내

온전한지성 DEW가 WORLDVIEW로 제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 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로교회
Graceway Community Church

비전센터

주일학교
행사 일정

기독교 세계관 목회 리포트 | 경산 은혜로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글 황성건 은혜로교회 담임목사, (사)청소년교렷볼 대표간사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성경적인 삶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세계관이 정립될 때 삶에 적용하는 범위와 과정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앙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데에는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는 있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변화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역 중심의 교회구조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구조가 중요하다. 은혜로교회는 일반 행정적인 구조가 아닌 성경적인 삶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역(국) 구조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대부분의 일반 교회의 구조는 회의 중심(당회, 제교회, 공동의회 등)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한다. 이런 조직과 회의 중심의 전통적인 구조는 사역의 역동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이루어 가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반면에 은사 중심의 사역자 배치와 세상을 향한 선교적 관점의 사역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기체 조직의 모습을 지향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몸에서의 각 지체가 역할중심으로 건강한 행동을 유지하는 것처럼 실제로 교회 공동체 역시 사역을 통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건강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의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의 훈련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적 의미를 이해시키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은혜로교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기본 범위(성경, 신학, 삶) 안에서 각 훈련프로그램을 세분화 하고 있다.

1. 기초적인 성경의 이해와 훈련

구원에 관한 확신(5주) → 기독교 교리학교(6주) → 평신도 성경대학(4학기)

2. 성경적 신앙생활의 이해와 훈련

기독교 세계관 학교(세미나, 개론, 영역별 강의), 제자훈련(기초반), 예배학교와 기도학교, 가정행복학교

3. 헌신과 섬김의 이해와 훈련

사역자훈련(사역반) 전도폭발훈련과 사명자학교 지역사회 봉사과 섬김

교회 공동체의 비전선언문

건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 두고 있는 비전선언문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목적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집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신앙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양육하여, 스스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다하도록 준비시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운다.” 물량중심적인 교회의 모습과 형식적인 종교성향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된 교회와 성도들은 동일하게 그 뒤를 따라야 할 것이다. 교회의 모습이 잘못된 기복주의에 사로잡혀, 집단적 이기주의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형적인 성장병(?)에 사로 잡혀 있는 교회들, 사면니즘에 젖은 형식적인 기독교인들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세계관의 변화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데 행동이 건강하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의 문화와 세상을 향한 말씀의 적용은 언제나 교회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수구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실천으로는 결코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다. 따라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뒷받침될 때 성경적인 문화도 형성 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실천 운동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복음주의적인 삶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 당하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운동이 가장 실제적인 것이다. 은혜로교회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가장 큰 실천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며, 실질적인 복음증거의 사역을 하고자 노력한다. 크게 복지차원에서와 문화차원에서 사역을 나눌 수 있다.

1. 복지 차원에서의 사역

먼저 복지 차원에서의 실천 운동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구제, 봉사활동이다. 주중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섬기고 있다. 다양한 학과목들(영어회화, 한글, 체조, 탁구, 공예 등)을 개설해서 노후의 여가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현재로는 약 45가정을 돕고 있으며, 이 섬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 활동, 실버학교를 통한 지역의 노인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 매주 실버학교를 통해서 150명의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주부들을 위한 동화나라와 주민들의 소통과 교제의 공간으로 카페와 은혜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2. 문화 차원에서의 사역

이웃 사람들에게 매년 기독교 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마다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주민들과 거리감을 좁히고, 기독교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예컨대 부활절 기념 뮤지컬, 추수감사 기념 가을음악회, 성탄축하의 밤 등을 통해서 이웃을 초청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단순히 전도차



원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소개하고, 교회에 대한 편견을 사라지게 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음악회를 교회 센터(콘서트홀)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좋은 영화를 상영하며, 미술 전시회 등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교회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바르게 할 때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끼리 예배만 드리고 가는 모임이 아니라 그 시대와 지역을 향한 등불의 사명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기독교 세계관 연구모임

교회 안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관 연구모임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는 일 또한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도서들을 읽고 함께 나누면서 사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자신의 삶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조망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주일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캠프 등을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개최한다. 격월로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도서들을 교회 게시판에 게재하여 교우들에게 추천하며, 독후감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행사도 갖게 한다. 건강한 교회공동체와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철저히 훈련되고 준비되어야만 한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단순히 지성 운동이나, 학문적 차원에서 멈추게 되면 올리는 팽과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실천운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의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삶의 우선순위에서 언제든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음과 현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먼저 이 운동에 앞장서야만 한다.




경산 은혜로교회 황성건 담임목사는 고신대학교와 동 대학원, 종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남아공 포츨스트롬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후 캐나다 VIEW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공하였다. 경산 은혜로교회는 대구 영남대학교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을 목회의 중요한 기초로 세워져 실천하는 교회로 다음세대와 선교지향적인 사역을 하는 대구 경북의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다.

Pan Asia &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PAUA란 무엇인가?

글 원성욱 PAUSA미국장



125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못 배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우수한 자들을 보내셔서 많은 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대학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헌신을 통해 우리 민족은 영, 혼, 육 모든 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뿐 아니라, 많은 학교와 대학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한 기독교 세계관은 오랜 역사 가운데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의 가치관에 묻어 있던 우리 민족에게 가치 혁명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 민족이 오랜 억압의 메임을 끊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뿌리 깊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민족 만큼 단시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예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자리갔습니다.

열방을 섬기는 자리

20여 년 전 중국의 연변 땅은 깨어나지 않은 중국의 변방에 가난한 조선족이 사는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곳이었습니다. 20년 전 하나님은 중국의 변방 연변 땅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 하여금 연변과기대학(Y 대학)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중국, 북한, 한국 사이에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인재들을 길러내는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이 민족을 단시간에 큰 경제적 부흥을 이룬 기적을 창조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께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교육 기관과 대학을 세우게 하시고 계십니다. 현장에서는 한류라는 놀라운 열풍을 실감하며 삽니다. 이 시대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열방에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느낍니다. 이제는 그토록 가난 속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나라에서 열방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나라로 그래서 이제 203개국에서 85,000명 이상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오는 나라로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깨우는 사명

을 주시고 그곳에 대학을 통해 그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킬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대학은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곳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우리가 이전에 그랬듯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가치관에 묶여 있고, 그 세계관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학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들을 매일 함께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그토록 단단하고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의 견고한 가치관을 깨고 들어가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인도하는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장이 선교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정신만 있다면

PAUA는 그렇게 세워진 선교 대학들의 연합체 모임입니다(Pan Asia &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현재 11개국에 9개의 설립 운영 중인 정회원 대학과, 6~7개의 설립 준비 중인 준회원 대학이 함께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 대학을 통해 열방에 길러지고 있는 사람들은 1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선교 대학은 모든 영역,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연합의 장입니다. 대부분의 선교 대학은 교수 자원도 석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경우 초·중·고등학교도 함께 세워져 다양한 분야에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열풍이 불고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6개월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교 대학에는 교회 사역자도, 예배 사역자도, MK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장기가 아니어도, 6개월이나 1년, 단기로 가서 섬길 수도 있고, 준비된 교수님들은 방학 동안에 특강으로도 얼마든지 함께 가르치고 섬기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여름 겨울 단기팀으로 가서 그 땅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가르치고 섬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제2의 인생을 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도 더 가치있고 보람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정신만 있다면 어느 분야, 어떤 사역으로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한국의 소명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

PAUA 2011 선교 대회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교수님, 전문가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도전하는 장입니다. 선교하는 한국에게 특별하게 맡기신 소명과 그 은혜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구의 선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선교를 위해 대학을 세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기회들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하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런 축복의 기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길러내 줬습니까?

PAUA 대회는 1월 20~22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귀한 은사와 탁월한 학문적 능력으로 준비시켜 놓으신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에 여러분들과 기독교 교수님, 전문가 여러분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는 장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각 선교 대학에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함께 됩니다. 그분들의 가슴 벅찬 도전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수님들과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1일에 진행되는 연합 선교 포럼 (1/21 09:00~17:30)에 오시면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 부르심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허락한 재능이 열방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지 새롭게 깨닫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참가신청 및 PAUA 둘러보기 : <http://www.paua.kr>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비법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1km일까? 1m일까?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기독교 영성학 교수인 저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추구하고 애쓰는 과정에서 탐구한 지혜와 경험담들이 겸손하면서도 유익하며 흥미롭게 담겨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선물이다.

벤 캠펠 존슨 지음 | 박주성 옮김 | 신국번형 | 296쪽 | 12,000 원

2011년 새해를
CUP와 함께!



작품명 올리지 않는 일곱 개의 종 1999.



기독교 세계관 미술의 지평을 열다(I)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가 만든 조상(조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C.S Lewis

루이스의 글을 읽으며 한 크리스천 조각가는 미소를 짓는다. 다행히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위대한 조각가로, 우리를 그가 빚은 작품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분의 작업실이란. 그의 형상을 닮은 조각가로서 그의 작업실인 세상에 살고 있음이 늘 경이롭기만 하다.

글·사진 오의석 조각가, 대구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동 대학 MF 지도교수

예술에 '길을 묻다

오늘날 예술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청년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청년들이 그 만큼 똑똑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술이 그 위치를 격하시킨 데에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돈의 위력 앞에서 예술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었고 작품은 고가의 상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현실이다. 그래서 예술에 목숨을 건다는 의미는 곧 돈에 목숨을 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인기 스타 작가들이 누리는 명예는 하늘을 치솟고 그들의 성공은 많은 청년 작가들의 선망이 되고 있다.

나의 학창시절인 1970년대의 상황은 분명 지금과 달랐다. 작품이 잘 팔린다는 것이 오히려 작가들에게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고, 배고픈 예술가는 못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작가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예술은 낭만이었고, 영원과 진리에 이르는 숭고한 길일 것이라는 믿음이 미술학도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삶의 궁극적인 해답을 미술을 통해 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그 길에 뛰어들었으니까 말이다. 나름대로 계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술은 종교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필요치 않아 보였고, 철학에 필요한 명석함도 덜 요구되어 보였다. 오히려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하면서, 사회적 통념을 깨는 방종의 삶까지도 묵인 받으면서 그 삶이 구도적인 길로 여겨진다면 그거야 말로 생애 최고의 선택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시대의 분위기와 세속적 미술론에, 그리고 자신의 잔폐에 속아서 내린 결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혼돈의 시간을 보냈는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술 본연의 위치와 그 사명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모색이 필요했는가? 어쩌면 인생과 예술 전체를 도둑맞을 수도 있었던 청년기의 선택을 돌아보면 지금도 아찔하며 등에 진땀이 흐른다.

말씀과 형상 사이에서

예술지상주의자로 미대에 진학하여 조각을 전공으로 선택한 나는 형상의 절대성을 부르짖으며 많은 고집과 역지를 부리곤 했다. 그리고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와 투쟁에 몸살을 앓아야 했던 캠퍼스에서 나와 친구들의 미의식은 많이 굴절되고 왜곡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미술

의 순수성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다. 미술도 얼마든지 돈벌이와 명예의 수단이 되고 정치적 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고 예술을 통해 진리를 찾아보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미술에 대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과도한 집착은 점차 회의로 변해갔다.

그 방향과 분노의 청년기에 말씀이 찾아왔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을 만난 것이다. 찾아온 말씀은 그 동안 의지했던 형상세계 전체를 뒤집고 전복시켰다. 말씀의 영원성과 창조성,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에 대한 자각과 체험 앞에서 유한한 피조체로서의 형상이 가지는 힘과 영향력이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형상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제자로 따라나설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다. 돌아보면 그것은 한 조각가에게 있어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었다. 그 때로부터 전공과의 갈등, 교수님들과의 불화와 충돌, 미술계로부터의 소외가 시작되었다. 그 광야의 여정에서 애굽에 대한 동경이 없지 않았지만 다시 홍해를 건너 돌아갈 수는 없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나선 제자들처럼 미술과 조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기로 한 청년조각가에게 형상이란 오직 말씀의 증거와 선포를 위해서 드러져야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회심한 가난한 청년 조각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고철과 철제의 오브제들을 용접한 십자가의 작품 시대는 이렇게 열렸다. 그러나 재료의 물성과 순수형상의 추구에 깊이 빠져있던 모더니즘 미술의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종교적 테마의 작업이 설여지는 거의 없어 보였다. 당시 현대 미술의 주요 이슈는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성을 어떻게 국제화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되었고 이를 놓고 고심하던 현대 작가들의 눈에 서구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기독교적 주제의 현시는 매우 낯설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말씀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대한 압박은 이처럼 미술계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었다. 보수적인 교회의 전통 안에서도 여전히 경계의 시선을 보여 왔고 조형 작업의 입지는 매우 좁아만 보였다. 미술계와 교회로부터 느끼는 이러한 압박과 함께 말씀을 직역하여 체현한 형상에 대한 성찰이 내 안에



작품명 흙, 사람, 불 테라코타군상, 1992

서부터 있게 되었다. 그러한 형상과 이미지가 과연 말씀의 실체일 수 있는가?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하는 위험한 것은 아닌지? 이미지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한계와 부작용을 보다 크게 인식하면서부터 확신에 가득차 있던 나의 작업은 다시 딜레마에 빠졌고 또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다.

기독교 세계관의 힘

기독교 세계관은 나의 미술과 작업에 들려온 두 번째 복음과도 같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해 작업이 회복되었으며 그 지평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형상화하는 작업의 제한성과 기독교적 소재주의에서 벗어나 말씀의 눈으로 자연과 인간, 역사와 현실, 환경과 일상, 곧 만물을 다루고 조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미술이라는 시각은 놀랍고 복된 소식이었다.

1980년대 후반, IVF 예술학사 모임에서 접한 프란시스 웨퍼의 <Art & Bible>과 한스 로크마커의 <Art need no justification>을 스터디 하던 당시의 흥분을 잊을 수 없다. 그 후 CUP 서적과 라브리의 강좌는 세계관으로서의 미술론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힘이 되었으며,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의 멤버로 여러 논문들을 기고하게 된다.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해 미국 Calvin College 미술학과에서 일년을 보낸 후, 한국미술인선교회의 위촉으로 연구한 논문 <창조, 타락, 구속의 미술 - 미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조명>은 미술의 전체적 실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루면서 기독교미술론을 정리한 것으로 그 결론을 “기독교 미술 선언”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게 된다.

세계관으로서의 미술 이해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고 않고 작품세계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고철에서 흙으로, 1990년대 테라코타 작품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관을 작품의 재료인 ‘흙’과 주제인 ‘사람’ 마지막 과정인 ‘소성’을 통해서 유비시켜 낸 작업으로 말씀의 진리됨을 변증해 보

이러는 노력이었다. 지난 세기말 지구촌의 기아와 전쟁, 재난의 사진 이미지들을 특정한 오브제 사물에 콜라지(collage)한 작품들은 말씀의 실천과 참여적인 조형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꿈꾸어 본 것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았고, 작품과 삶의 일치라는 숙제를 실천하기 위한 장으로 중국 연변을 선택했다. '연변의 흙(사람)과 바람(자연) 속에서' 작업한 야외작품들을 연변과기대의 캠퍼스에 남기게 되었고, 귀국 후에는 '새 순(2006)', '하늘·땅·사람(2008)' 등을 주제로 환경조형의 작품세계를 열어가기에 이른다. 최근 수년간 있었던 개인전, '기념비적 형상'(2006), '부흥'(2007), '열방의 빛'(2008), 2009년의 '로고스아트피아', '불의 흔적', 그리고 2010년의 '조각과 환경' 프로젝트 전에 이르기까지 주제를 달리하면서 계속된 전시들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이해하며 품는 일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어왔다. 그것은 한 작가의 단편적인 작업들이 모여져서 모자이크를 이루는 공동체적 작업으로서 기독교 미술을 바라보는 거시적 시각을 갖게 했다.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산책'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저서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대부분의 작품에 접근할 수 있었다. 먼저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여러 작가들을 만날 수 있고, 타락으로 인해 빚어진 왜곡된 세상의 실상과 사람들의 고통

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믿음의 작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 안에서 회복된 삶을 다루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웃한 작가들과 동일한 고백 안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세계가 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함께 창조의 동산을 가꾸어 가는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 조각가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으며, 기독교 세계관이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된다.

한 그리스도인 조각가의 작업과 삶은 기독교 세계관이 열어놓은 미술의 지평 안에서 더없이 풍성해졌고 그 지경을 넓혀 왔다. 창작과 연구, 교육, 평론과 저술에 이르기까지, 작가로서 감당하기에 벅찬 미술의 풍성한 숲길을 걸어오게 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제공한 강력한 힘 때문이었다. 그 세계관과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작업의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루이스의 말처럼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 이 세상에서 한 점 작품이 생명을 얻고, 감히 작가의 형상을 닮은 조각가로 사는 것만큼 가슴 벅찬 일도 없을 것이다.



작품명 연변의 흙과 바람 속에서 과기대 조각공원 2001.

2011년 경제전망과 크리스천의 자세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지난 한 해도 유럽발 경제위기설, 중국의 긴축,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나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경제는 8년 만에 6%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해, 다시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주가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또한 수출규모는 세계 7위로 부상했다. 게다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인 한 해였다. 2011년 새해에도 지난해의 건실한 성장을 기초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새해의 경제를 전망해 보고, 이를 위해 한국 교회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2011년 새해의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 국내의 경제 여건을 살펴보겠다.

먼저, 국외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복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기업이익이 호전됨에 따라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교역량이 25%에 달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 임금에 크게 상승되고 중국 정부가 소비촉진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에 기반을 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주요 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1년에는 4% 초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던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문제가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즉 달러 살포를 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원유, 식량, 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증대함에 따라 국제 유가의 오름세를 새해에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국내 여건의 경우 작년의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 구매력은 상당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가와 부동산 가격 전망도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의 경우 작년엔 2,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새해에는 2,400 포인트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매매도 크게 증가하여서 새해에는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가계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LCD 등 주력 업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가동률이 높아져서 기업투자 여건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주택건설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간부문 주택건설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에 공공부문에서는 작년의 인허가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새해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 절상 기조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8.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수출을 견인할 부문은 IT산업으로 신형시장의 IT제품 수요 증대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IT 분야에서 수출이 10% 가량 증가하면서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이러한 국내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성장률의 경우 지난 해 6.1% 보다는 다소 낮은 4.5%를 기록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수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26만명 증가해 실업률은 작년의 3.8%보다 다소 낮아져, 3.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소비

자 물가의 경우 3.5%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경상수지의 경우 작년의 290억달러에서 올해에는 180억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넷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새해의 경제전망은 이러한 것들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에 따라서 경제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임금에 대해서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동향이 주목됩니다. 복수노조 문제, 전일자 급여 등 노사갈등의 새 불씨가 남아 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의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동향 또한 새해 한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12.1% 상승하여 10년만에 최고치인 128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남북갈등이 새해 경제의 큰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전망을 소개했다. 경제란 기본적으로 앞날에 대한 예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금협상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이자율도 마찬가지이다. 투자결정도 경제전망에 대한 예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해마다 정부와 각 경제연구소에서는 새해에 대한 예측을 하지만, 그것대로 경제가 돌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와 경험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을 매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 없이 인간의 지혜에만 의지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게을리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성장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북한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다. 작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무상급식, 어떻게 볼 것인가?

글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2월 30일 서울시 의회가 2011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신설 또는 증액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가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는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에서 지난 지자체장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오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하면서 새로 당선된 진보 진영의 여러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하면서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본질적으로 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살펴보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무상급식이 복지 차원의 시대적 요구라고 내세우고 있다. 즉 모두에게 동일한 복지의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제사정이 좋은 가정의 자녀까지 모두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은 '부자 무상급식'이며 이는 정말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복지재원을 고갈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론조사에는 85% 정도에 달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찬성하므로 무상급식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즉 진보계열에서 제시하는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이며 진정한 복지의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세금으로 물어야 할 돈인데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를 여론조사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요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것이 좋겠느냐, 안보는 것이 좋겠느냐를 물으면 대부분 안보는 것이 좋다고 대답한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으나 다른 학생들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할 수 있다. 설사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적 교육감들이 내세우는 체벌 금지, 학생들에 대한 성적 평가, 교원평가 문제 등은 교육이 가져야 하는 고유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검토보다는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느낌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교평준화 문제도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다수의 학부모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여론조사식 의사결정이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는 별개라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경우도 우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한정된 예산이 무상급식 중심으로 쓰이다 보면 더 시급한 곳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이 진정 국민의 복지보다는 정치적 계산과 선거운용으로 쓰이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성경에서도 이처럼 사람들의 여론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5)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의 제도에 대한 실상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이에 사무엘은 왕이 백성들에게 병거와 말을 달리게 하고,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고, 백성들에게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딸들을 궁녀로 삼고, 신하들을 위하여 백성들의 좋은 밭과 포도원, 양떼를 취할 것이라며 왕정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린다(삼상 8:9-18).

성경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의 대표적 예는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시 146:9)에서 알 수 있듯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베품도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고 하셨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복지혜택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거창한 이름 하에 무차별적으로 복지혜택을 베풀고 표를 사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보편적 복지는 복지재원을 고갈시켜 정말로 밥을 먹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돌아갈 복지혜택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성경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고 하면서 근면함과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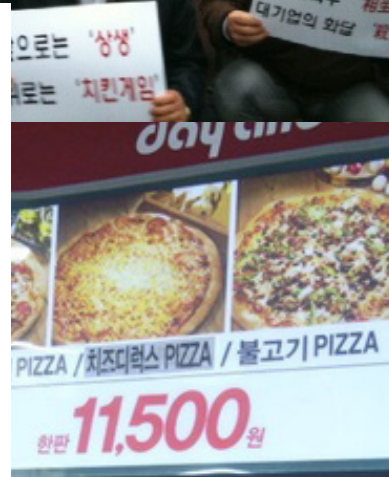




공정과 상생

글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재 우리 사회 최대 화두는 공정과 상생이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수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을 발전모델로 벤치마킹 하겠다고 몰려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평가에서 다소 인색한 것은 공정과 상생에 대한 사회적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생이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주체 또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가능할까?

지난 10여 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고 하도급관계를 둘러싸고 불공정성의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0년 9월 29일 동반 성장대책을 내놓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동반 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유통법과 상생법을 둘러싸고 논쟁과 대립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었다. 그 외중에 트위터에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가 이마트 피자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그 후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통큰 치킨' 출시와 철수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집단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재벌기업의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형 슈퍼마켓을 확장하는 행위,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인 피자 사업이나 치킨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정당인가, 또 이를 여론이나 정부의 개입에 의해 막는 것이 소비자의 편의 측면에서 합당한가라는 이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지만 상당수는 소비자가 싸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는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치킨판매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세 상인 보호차원에서 판매 철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4.4%이지만 "값싼 치킨을 구매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의견도 36.5%로 상당수의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치킨 가격의 거품 논쟁이 발생했고 2월 16일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세상인들의 권리도 중요하나 치킨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경제스쿨의 한 논자는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자체가 좌파적 논리이며 경쟁 촉진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 '동반성장이 혁신을 파괴하고 안주와 담합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취지였다.

치킨 가격의 거품논쟁이 일자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의 조동민 부회장은 비공식적으로 치킨원가를 밝혔다. 닭의 원가는 4,000원이지만 식용유, 파우더, 무, 소스, 콜라, 박스, 임대료, 카드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하면 실제 판매가격은 12,000원이라는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거품가격 논쟁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받고 매출이 줄자 개구쟁이 소년이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맞아죽은 개구리에 비유하며 롯데마트를 비난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인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나의 신앙 또는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무엇이 올바른 입장인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피자나 치킨 같이 소상공인과의 이해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는 처음부터 진출하지 않는 것이 옳다. 대기업은 상생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만이 아닌 사회적 평판과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사려 깊은 자기검열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촉진되면 품질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견해도 맞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을 막대한 자본력, 유통망, 계열사를 가진 재벌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경쟁에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첫째, 효율성 증가 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

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마트의 피자나 롯데마트의 치킨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상품일 뿐이고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힘들다고 본다. 직접 원가만이 아닌 부차적인 서비스나 장소에 대한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기 힘들다. 이들이 대량구매에 의한 원재료 구입가격을 낮추려면 공급자와의 협상에 의한 강압적 가격인하를 시도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둘째, 공정성 관점에서 볼 때도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분야에 뛰어들어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면에서 공감을 얻기 어렵다. 한달에 200~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역인 시장에 대기업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진입한다는 자체가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규모에 비해 자영업 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영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저조하고, 피자나 치킨은 그나마 여건이 다소 나은 편에 속할 뿐이다. 1,0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이웃집의 1마리 양을 넘보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1,0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더 가지면 약간의 이익을 얻겠지만 이웃은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 배려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볼 때 배려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용어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철학의 시조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배려(benevolence)를 사회적 공감(sympathy)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성정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관행을 중시하고 있다. 희년 때 저당 잡힌 토지를 돌려주도록 하여 삶의 터전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으며,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남겨 놓아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년 전 일가족 6명이 집단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슈퍼마켓을 열었는데, 옆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게 되자 적자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사채를 얻어 쓰게 되었고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둔 가정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비극적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 한 가정의 불행이지만 이러한 일은 현재와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가급적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대기업이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제로섬 게임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사례는 대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롯데마트의 치킨에 비해 이마트의 피자는 비판의 화살을 덜 받고 있어서 안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재벌 가족간 거래로 인한 독점이익의 추구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신세계 이마트에 피자를 독점공급하고 있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5%의 지분을 가진 개인회사로서 거래 공정성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수많은 계열사를 가진 재벌기업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에 대해 법적 감시를 받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를 통한 편법 상속, 현대 자동차의 글로벌 등 법적 제재를 받은 사건만이 아닌 현재 수많은 친인척 계열사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위장계열사의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

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재벌기업의 위장계열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상생경영은 어렵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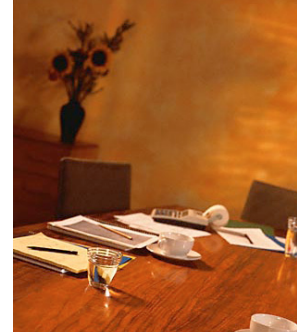
복합 사업구조를 가진 재벌 대기업은 막강한 권력집단이다. 경제적 파워만 아니라 정치적 파워, 사회적 파워, 심지어 문화적 파워까지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하기 쉽고 이는 불공정을 야기하게 된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법을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삼성과 법률 분쟁으로 도산의 위기를 경험한 중소기업 사장은 “삼성한테 맞으면 빗맞아도 사망”이라는 말을 했다. 대기업의 납품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해 위기를 겪거나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 사장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다. 재벌 대기업 권력의 사회적 제어가 필요하며, 이는 여론과 적절한 법적 장치를 통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혹자는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다 그런 것이 아니냐? 약자 편을 드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한다면 이는 인간사회가 아닌 정글에 불과하다. 롯데마트는 처음부터 이런 방식의 영업 전략을 택하지 말았어야 했고 빠르게 철수를 결정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이마트 피자사업도 재고가 필요하며,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대기업들도 수익과 성장만이 아닌 공정과 상생의 기준을 적용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여건

건강한 사회란 국민 각자가 괜찮은 직업이나 생업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기 생계를 꾸려가는 기회와 여건이 유지되는 사회다. 실패하는 사람보다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며, 건전한 가정경제의 유지는 행복추구의 기본조건이며 사회 안정의 기반이다. 대기업이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거나 시장 규모를 키우면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한정된 규모의 시장을 공정성이 결여된 방법에 의해 탈취해가는 게임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막대한 자본력과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기업이 공정 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망각한 행위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기업이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처럼, 앞으로 한국사회의 공정과 상생의 수준을 높여서 바람직한 선진사회를 구축하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ORUS FTA 추가협상 외통수였나?

235년 전 아담 스미스(A. Smith)와 후계자인 데이비드 리카르도(D. Ricardo)는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를테면 두 나라 간 상품 생산에 생산성의 격차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발생할 때 국제무역을 통해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늘날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의 담론이 일상생활에서 회자되면서 국제무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지만 무역 자유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로 구분하면 견해가 상반된다. 국제무역에 가치판단을 이입시키기 때문이다. 즉 무역을 하지 않을 때보다 무역을 통해 더 큰 이익(gains from trade)이 발생하느냐의 본질적인 측면보다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비해 더 큰 이익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익을 빼앗긴다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으로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글 김태항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국제무역의 자유와 규제의 줄타기

무역 자유주의와 무역 보호주의의 핵심적인 공통분모는 자국의 이익 증대이다. ‘자유’의 의미는 모두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이지만 무역을 제한할 때(무역 보호주의)가 무역을 자유롭게 할 경우보다 자국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 무역 자유주의는 더 이상 유용한 가치가 될 수 없다. 무역 자체가 무익한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의 상대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즉 수출은 자유롭게고 수입(輸入)은 규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일방적인 생각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무역 자유주의나 무역 보호주의 모두에 함정은 있다. 관건은 국가 경제 발전에 국제무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규제화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초에 합의된 한미 FTA(KORUS Free Trade Agreement) 추가협상 결과를 생각해 보자. ‘굴복협상’이었다는 주장과 ‘최선의 방어’였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국가 간 통상협상에서 협상 결과가 시행되기도 전에 어떤 이유에서든 추가 또는 재협상의 사례를 남긴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이유로 협상의 결과가 발효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어 있는 것도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KORUS FTA는 2007년 6월 30일에 본 협상이 타결된 후 무려 3년 5개월 동안이나 발효되지 못한 장기간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국내총생산의 증가(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외자유치, 무역 증대 등의 FTA 추진효과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로서는 2008년 상반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촛불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된 까닭에 2009년 4월에서야 국회 상임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KORUS FTA 비준 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 중이다. 미국으로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심각한 구조조정 의 여파를 감당해야 했으며,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 출범과 민주당 주도의 의회 구조로 비준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KORUS FTA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취임 후 미국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KORUS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문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한미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자동차 업계와 이에 편승한 의회 의원들의 강력하고 집요한 요구였다. 2009년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가 45만1천 대인 반면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은 6천6백대 수준이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현대차와 기아차 21만 대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 구매 물량은 미국의 한국 자동차 구매량의 10분의 1 수준이므로 사실 미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의회와 행정부에 강력한 로비를 할 명분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의 핵심은 미국 자동차의 국제 경쟁력 약화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6%에 도달했다. 유럽산과 일본산 자동차 수입은 증가한 반면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감소했다. 즉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개방 정도가 낮거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배타적으로 수입을 규제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어 우리 소비자의 선호도가 약화되었고 그 결과로 한미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포드나 GM의 시장 점유율이 저하하고 심각한 경영 악화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 이러한 견해를 반증한다.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던 추가협상

이번 KORUS FTA 추가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한 대가로 돼지고기와 의약품 수입에서 유리한 내용을 추가했다. 협정이 발효된 후 실질적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본 협상에 비하여 이번 추가협상에서 큰 폭의 양보를 한 것은 분명하다. 한 가지 간단한 예시로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 50만 대, 단가 2만 달러를 가정해 보자.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2.5% 즉시 철폐가 4년간 유예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기대했던 4년 간 총 10억달러(50만대x2만달러x0.025x4년)의 가격 인하 요인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미국 개인 소비자가 500달러 가격 인하가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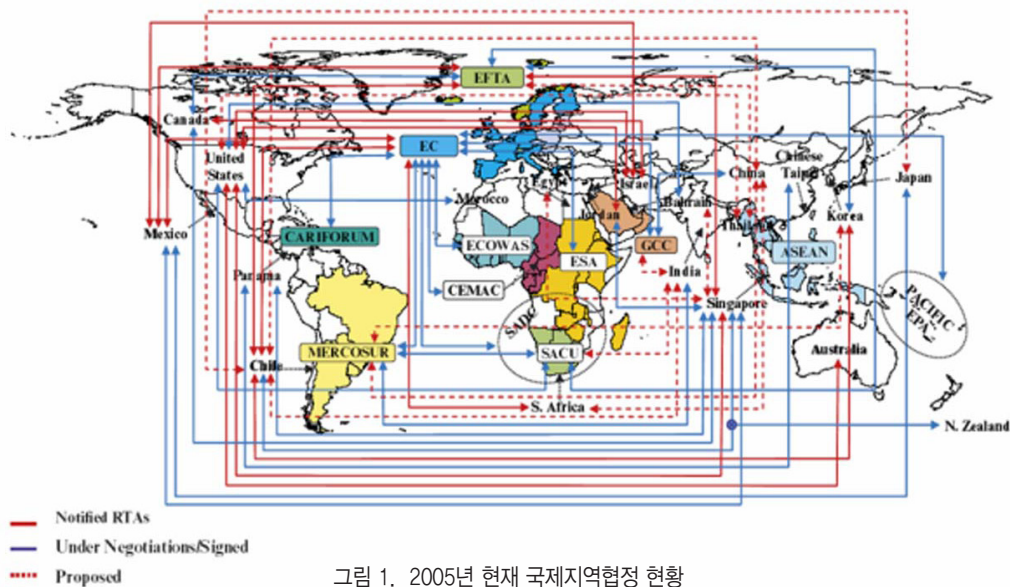


그림 1. 2005년 현재 국제지역협정 현황

동차 구매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가격 인하의 마케팅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자동차 업계와의 치열한 경쟁 구조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한편으로 2007년 본 협상 결과와 대비한 경우와 다른 한편으로 지난 3년 5개월 동안처럼 FTA 발효 지체 또는 무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한 가지 분명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번 추가협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고 우리나라로서는 FTA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본 협상에 버금가는 추가협상의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추가협상을 선택했다. 최선의 방어 전략이 추가협상의 주안점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과제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세계 통상체제에 중대한 파급영향을 끼칠 KORUS FTA가, 올 7월 발효 예정인 한-EU FTA와 더불어 발효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계획하고 기대했던 협상 결과를 어떻게 경영해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하나님의 경영(잠 16:1,9)에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협상의 결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양한 수준으로 현실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체제에서 지역주의가 거미줄처럼 확산되고 있으므로(그림 1 참조) 무수한 계획이나 정책들은 상호 협조적일 수도 있지만 상충되어 더 큰 갈등을 빚어낼 수도 있다. 단 기적이거나 일방적인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협상 구조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 결과가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힘써 일하심(役事)은 정태적이지 아니라 동태적 관점에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는 서로가 최선의 공동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결과를 단면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향후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실현 결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여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경쟁구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영 체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이지만 인간의 안일함과 죄성에 근거한 무기력함과 게으름은 최우선적인 경계 대상이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경영자는 하나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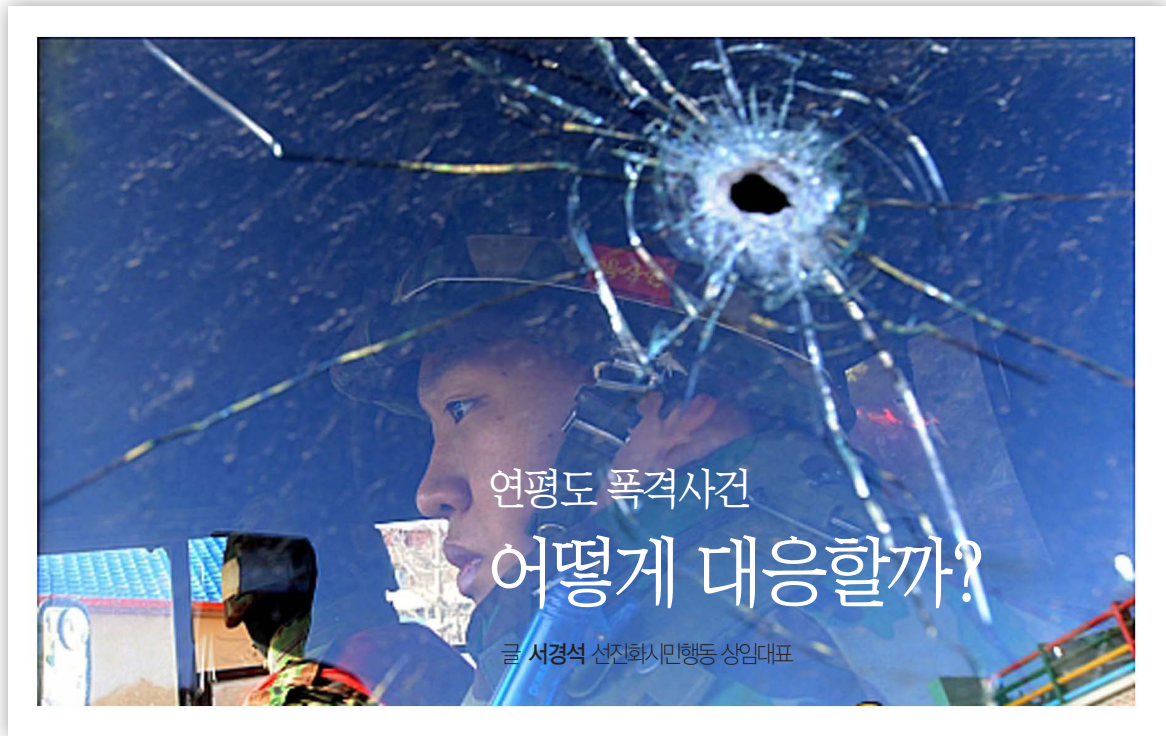
지만 삶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은 우리의 몫이었다. 지나친 경쟁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원초적으로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투쟁하며 땀을 흘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력 부여 은총을 부인하는 이방인과 그 문화를 가나안 땅에서 진멸해야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선의의 활동 또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구조는 자본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체제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제도 이 가운데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FTA는 쌍방이 무역 자유화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웃 사랑 명령을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FTA가 당사국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또는 국내 특정 산업부문의 혜택 증대에 집중된다면 결과적으로 배타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FTA는 시장의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에 의한 결과이므로 정책의 수혜자와 소외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내에서는 FTA의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산업 구조 조정과 정책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FTA의 이익을 보다 많은 나라들에게 확산시키고 공유할 수 있도록 FTA의 성과 창출과 성과 확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배타적 지역주의가 개방적 다자주의(多者主義)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야 한다. 우리가 유태인의 선민주의를 비판하는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배타적 특권으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FTA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가변적인 향후 경영성과

KORUS FTA의 최종 관문은 양국 국회(의회)의 비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 서로가 체력을 단련하여 공동의 결실을 어떻게 창출해 나아가느냐이다. 추가협상의 손익계산서는 전리품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향후 경영성과에 따라 가변적이다. 우리나라가 2002년 10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한-칠레 FTA(2004년 4월부터 발효)의 실제 손익계산서의 사례로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로서만 아니라 국가로서도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미래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기 때문이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평도 폭격사건 어떻게 대응할까?

글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지금 우리 국민은 연평도 폭격사건 앞에서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할 일은 북한을 규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실체와 본질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국민 중에서 북한의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천안함 폭침사건에서도 3, 40대 국민의 40%가 북한의 소행임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단합해서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지 못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남한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히 젊은이들이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를 희망한다.

북한은 악(惡)과 거짓의 나라

북한은 악과 거짓의 나라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에 김정일을 추종하는 좌파세력이 이렇게 많고 3, 40대 중에서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이유는 지금은 486세대가 된 386세대 때문이다. 이들은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 때 학생세력이었다. 원래 승리의 경험을 한 세대는 기(氣)가 세다. 그런데 이 세대가 대부분 주사파이다. 80년대 중반 아주 어려운 시기에 김일



성 주체사상이 유행하면서 주사파가 학생운동의 주류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대가 시민 운동, 언론계, 노동운동, 전교조, 정치계 등 사방으로 뻗어나가 중북좌파 세력을 크게 성장시켰다.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 평택 미군 철수투쟁, 한미FTA 반대투쟁, 광우병 촛불시위, 또 최근의 G20 반대 투쟁 등 대한민국을 흔드는 운동을 전부 주도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조차도 이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좌파였던 젊은 시절

나도 젊은 시절에 좌파였다. 대학생 때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82년에서 88년까지 미국에 유학가서 생각이 바뀌었다. 미국에 막 도착했을 때 교포사회에서 북한 방문이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사실 북한에 한 주일간 방문하는 사람은 북한의 실상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가끔가다 아들 집에 한 달간 머물다 온 노인들이 있었다. 내가 다닌 뉴욕 부르클린 한인교회에도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방북 기간 중, 한밤중에 아들과 단둘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북한사회의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내게 북한이 얼마나 거짓의 나라인가를 알려 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미망에서 깨어났다. 88년에 한국에 귀국하고 보니 기독교학생운동 후배들이 전부 주사파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처음 6개월은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들을 의식화시켜 진보운동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후배를 몰래 불러서 사회주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이 화근이 되어 후배들이 나를 개량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내쫓는 운동을 했다. 결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직에서 쫓겨났다. 그 바람에 NCC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갈 데도 없어지게 됐다. 그때 새로 시작한 운동이 경실련이라는 시민운동이었다. 경실련은 초기에 온건한 합법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386세대가 성장하여 시민운동으로 진출하면서 시민운동도 좌편향으로 가게 되었다. 결국 나는 경실련까지도 포기하고 다시 좌파와 맞서는 운동을 시작했다.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

그런 내가 가장 큰 충격을 느낀 사건이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이다.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며 수천 명이 모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이 작전만 없었으면 한반도가 김일성에 의해 통일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분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야말로 푹 떨어지는 중북(從北) 좌파 세력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중북좌파세력이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그들은 전교조, 전농, 민노총, 민노당, 범민련, 한총련, 민중연대, 통일연대, 그리고 나중에 진보연대로 발전하였다. 숫자도 3~40만명이 된다. 그들은 사회각계에 침





투해서 나라를 흔드는 일을 하는 세력이었다. 그때 시민단체에 메일을 보내어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랬더니 한 단체도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절감했다.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다. 내가 종북(從北) 좌파를 반대하면 틀림없이 후배들이 내가 꼴통보수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수모를 감수하더라도 할말을 하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했다. 좌파들이 평택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며 비무장 군인을 죽창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평택까지 내려가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그런데 그 데모에 온 사람들은 거의 다 군복을 입은 재향군인들이었다. 전에는 군복을 입고 집회에 오는 재향군인들은 극우라고 생각하여 싫어했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평택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였다. 이명박 정부가 압도적인 표를 얻고 출범한 것도 우리 국민의 좌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전교조가 힘을 얻을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나 하는 생각에서 BBK의혹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를 하여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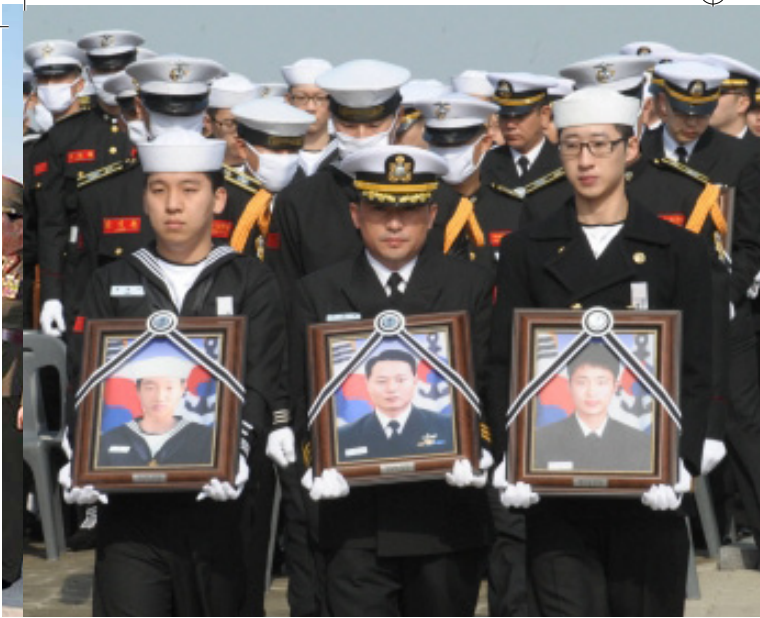
종북좌파세력은 청산되어야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을 때가 기회였다. 그 때 진보진영은 종북좌파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보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제일 먼저 변화를 보인 곳은 민노당이였다.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이들이 민노당 주류를 종북주의라고 비판하고 더 이상 그들과 당을 같

이 할 수 없다며 뛰쳐나와 진보신당을 만들었다. 만일 그때의 분위기가 계속되었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종북좌파들을 크게 청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광우병 촛불시위가 터졌다. 이 촛불시위는 종북좌파들의 작품으로 강기갑, 천영세, 박석운, 오종렬, 한상렬 등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을 주동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동했다. 그리고 월드컵 붉은악마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었다. 이 촛불시위가 성공하는 바람에 위기에 몰렸던 종북좌파세력이 다시 진보진영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좌파시민단체들이 다시 들러리를 서게 되었다. 이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역사 속에는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있다.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도 세력으로서의 친일파는 청산되었다. 세력으로서의 군사독재세력도 청산되었다. 세번째로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이 종북좌파세력이다. 이들이 청산되어 민주당과 합리적 진보세력이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비로소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할 수 있다.

지난 천안함 폭침사건도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45명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나라사랑범국민운동을 만들어 종북좌파를 청산하는 운동이 나와야 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채 출범하기도 전에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졌다.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소속 국회의원들 백30명



이 서명을 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서명하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사건은 광주 기독교교단협의회와의 입장 표명이다. 지난 화요일에 이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들리는 말로는 민주당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광주는 기독교인이 인구의 40%이다. 그래서 기독교 표를 얻지 못하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의 1,500개 교회들이 합심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광주에서 전남, 전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직권상정을 할 것이고 그때에는 민주당도 악착같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한 응징이 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북한을 응징하는 일이다. 교전 규칙에 따라 단호하게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후루시초프가 큐바에 미사일기지를 만들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은 3차대전 발발 위험을 무릅쓰고 해상봉쇄를 명령했다. 그때 나는 중학생이었는데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이라 라디오로 3차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뉴스를 들었다. 어린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3차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다. 결국 후루시초프가 미사일을 실은 소련 선박을 회항시켜서 3차대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평화와 안보는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군사적인 수단보다 비군사적인 수단이 더 중요하다. 한국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열

배, 스무 배 더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변할 것이며, 이 방법은 우리가 진심으로 북한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한 응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이번에 북한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근본원인은 남북 관계 경색에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응징하지 말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이 그럴 듯하다. 하지만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키려고 했다. 다만 북한이 정상화를 반대하면서 남북관계를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남북평화를 정착시킨 점이 있지만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맞추어 이룬 사이비 평화이다. 진정한 평화는 인권이 실현되는 평화이다. 한국이 인권개선을 주장하는 순간 그대로 깨어지는 평화는 가짜평화, 위장평화일 뿐이다.

솔직이 나도 십년 전에는 한반도에 평화부터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평화가 정착된 다음에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탈북자들을 만나본 후에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뼈저리게 느꼈다.

인권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인권 없이 평화만 생각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다. 북한 주민들의 혹독한 인권유린 참상을 외면하는 대가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북한 김정일로부터 보장받으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일제시대의



우리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으며 현재의 상황을 의연하게 견뎌야 한다. 그래서 끝내는 북한이 핵도 포기하고 인권도 개선하게 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게 단호한 입장을

가쓰라-테프트 밀약과 같은 것이다. 이 밀약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용인하는 밀약으로 두 수퍼파워의 평화조약이기 때문에 세계평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한없는 고통을 주는 밀약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러한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 북한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야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실현한 평화는 사이비 평화였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므로 지금의 경색을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남과 북이 서로 자기가 바라는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때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다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면서 인권문제는 제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안함도 폭침시키고 연평도도 폭격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북핵의 위협 하에서 한국사람들이 굴종과 굴욕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후퇴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당하며 살아야 한다. 북한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지금과 같은 테러로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은 걸으려는 화해와 사랑을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굴욕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수도 없이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집회를 했다.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기다리는 것은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와 처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는 일은 일체 하지 않았다.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정치난민들이 한국에 왔지만 그들을 돕지 않았다. 혹시나 그들을 돕다가 탈북자 돕는 일에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이다. 파룬궁 문제도 외면했다. 달라이라마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할 때도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위그르 사태 때도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베이징올림픽 때까지는 탈북난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중국은 탈북난민 문제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한 술 더 뜨는 행동을 했다. 천안함 폭침문제에서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고 천하에 기가 막히는 북한의 3대세습도 지지했고 6.25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한 시진핑의 망언까지 공식 지지했다. 중국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의 미래는 없다. 중국 정부가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면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다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중국이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인권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전 세계로 파급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나라는 바로 한국일 것이다. 이 점은 얼마 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중국이 국가이익을 위해 어떤 방법도 거침없이 동원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의 패권적 중화(中華)주의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절감했

다. 이번에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미국, EU,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가 이를 환영하고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한 이유도 경제대국인 중국이 계속 인권 열등국으로 남아 있으면 인류평화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리고 패권적 중화주의가 극복되기 위해서도 중국이 반드시 민주화되어야 한다. 이제 중국민주화의 문제는 더 이상 중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온 인류가 다같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특히 한국 국민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다.

많은 나라가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국은 자칫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약소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선진국이 되는 것만이 아니다. 의식수준도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국익에 손해가 되더라도 인류평화를 위해 할 말을 해야 한다.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한국이 약소국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까지 약소국민이 되면 안 된다. 정부를 대신해서 시민들이 “중국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를 석방하라!”고 외쳐야 한다. 지년간 7, 80년대에 한국이 군사독재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도운 것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중국민주화운동을 돕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전 세계의 염원을 중국은 절대로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조금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중국은 겉모양은 거대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돌팔매에 그냥 무너지는 맥없는 골리앗에 불과하다.

그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중단하지 말아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자는 점이다. 지금 우리 국민이 크게 흥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전(擴戰)으로 이어지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응징도 할 수 있는 한 비(非)군사적인 방법을 써야 하며 그 방법이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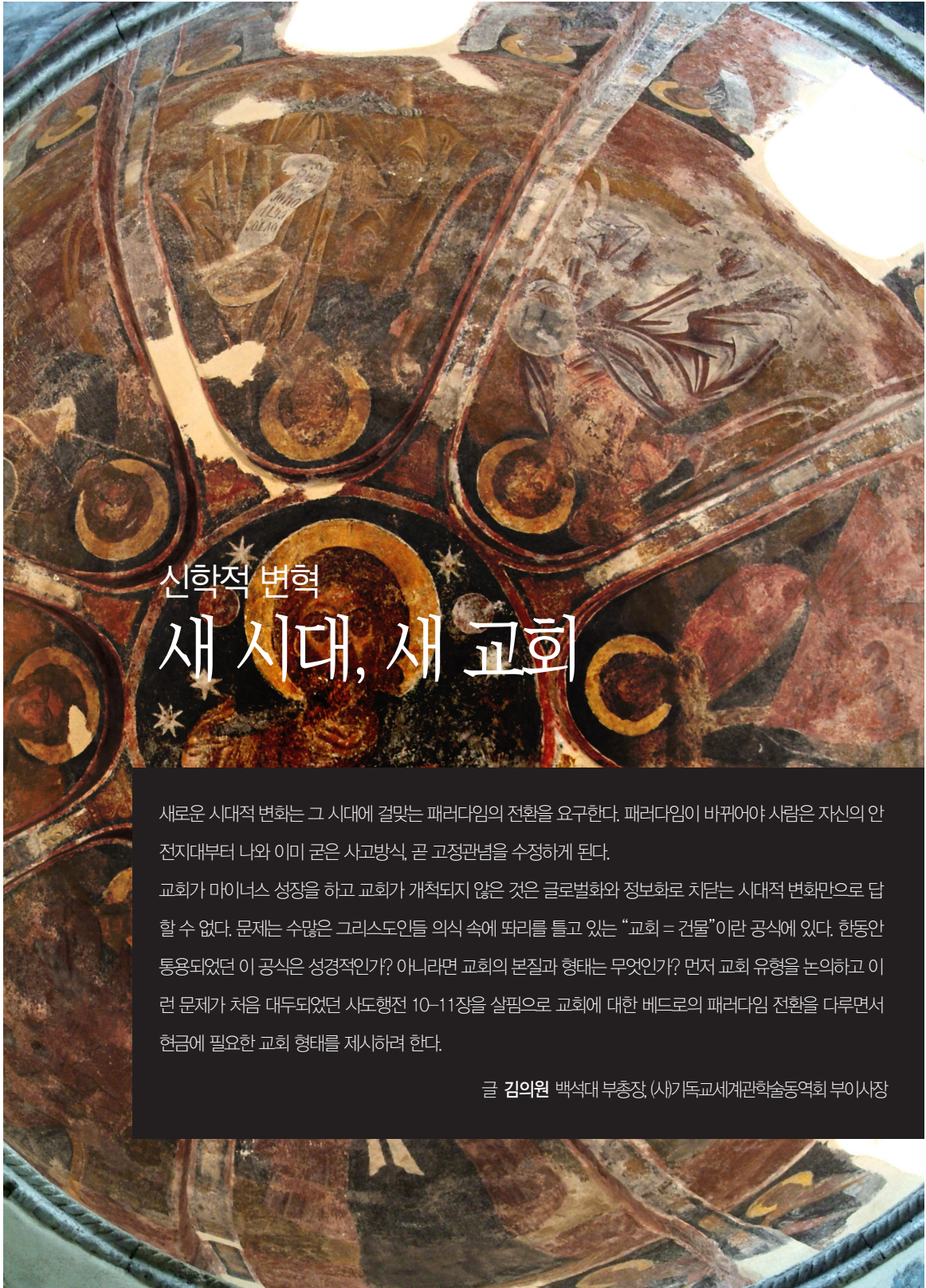
이번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북을 붕괴시키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와 같은 운명을 맞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이 개선되고 체제가 유연해져야 붕괴를 피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 너무도 절망하지만 그래도 연착륙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아무리 포격이 교차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북한동포 돕기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의 북한이 97년과 유사하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사자(餓死者)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에게 식량을 갖다 줄 수는 없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두만강변에서 직접 돕는 방안이다. 지금 북한은 식량난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각 지방에 자력갱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따라서 두만강변에서 얼마든지 직접 돕기가 가능하다. 이 방법은 조선족 동포를 보내어 투명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북한이 이 방법으로 돕는 것도 못하게 하면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동족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통일을 향해 한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포격이 교차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북한동포 돕기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하며 동족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통일을 향해 한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신학적 변혁 새 시대, 새 교회

새로운 시대적 변화는 그 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사람은 자신의 안 전지대부터 나와 이미 굳은 사고방식, 곧 고정관념을 수정하게 된다.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교회가 개혁되지 않은 것은 글로벌화와 정보화로 치달는 시대적 변화만으로 답할 수 없다.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의식 속에 파리를 틀고 있는 “교회 = 건물”이란 공식에 있다. 한동안 통용되었던 이 공식은 성경적인가? 아니면 교회의 본질과 형태는 무엇인가? 먼저 교회 유형을 논의하고 이런 문제가 처음 대두되었던 사도행전 10-11장을 살핍으로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루면서 현금에 필요한 교회 형태를 제시하려 한다.

글 김익원 백석대 부총장 (사)기독교서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교회의 유형(참고, 스나이더 84ff)

(1) 건물 교회: 이런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간주한다. 그 건물이 교회의 전체 프로그램과 생활양식을 완전히 결정짓고 만다. 이런 종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2) 유령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없음을 자랑으로 여긴다. 어떤 종류의 구조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는 상호책임성이나 조직적 상호관련성을 갖는 몸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조직이 결여되어 있어 안개처럼 증발해 버리거나 자신의 구조를 강화하여 모임을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3) 지체 교회: 신약이 제시한 경험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다. 이 교회 구조는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경험으로 서로 연대감을 갖는 작은 그룹들의 그물(network)에 기초한 광범위한 조직이다. 이런 교회는 가정이나 학교 또는 홀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시설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형태의 교회이다. 이런 교회는 작은 세포의 끊임없는 분열과 확장을 통해 사회에 깊은 충격을 가하면서 무한적으로 성장하며 삶을 지속하여 나아간다.

(4) 장막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나 그 건물은 엄격하게 부차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건물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에 불과하다. 건물은 융통성 있게 지어졌고 다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이런 교회는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일시적인 장막이나 천막처럼 건물을 간주하기 때문이다.

상기의 교회 유형들 가운데 지체 교회(#3)가 가장 성경적이며 장막교회(#4)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합법적으로 구성하는 모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스나이더는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nyder 87):

“어느 교회든지 밖으로 성장하는 일보다는 건물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고 모아진 것은 모두가 오로지 교회 안에만 있도록 붙잡고 있으며, 선교와 전도를 하기에 앞서 건축에 열을 올리며, 그 건물을 거룩한 기능 외에는 어떤 다른 일에도 사용하지 않고 사면의 벽에 갇혀 있는 사람 수로써 영적 깊이를 재는 그런 교회는 큰 건물 열등의식(edifice complex)에 갇혀 있고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하건 간에 거의 전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교회이다.”

베드로와 교회의 신학적 변혁

성경저자는 고넬료 기사(행 10-11장)에서 새 시대에 적절한 전도전략을 보여준다. 초대교인들은 주로 선민으로 자만심을 가진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신학적 고정개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2)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 3)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교회의 새 패러다임을 주심으로 새 시대에 맞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 고넬료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개념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결례법에 따라 살지 않은 이방인은 부정한 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기사의 표층은 고넬료의 회심을 말하지만 심층은 베드로가 체험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준다. 베드로의 신학적 변혁이 없이는 고넬료의 회심은 불가능하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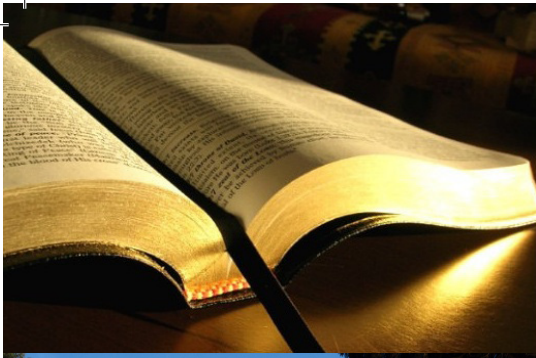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행 1~8절)

고넬료는 구제와 온 가족과 더불어 기도해 힘쓰는 자로 소개되었다(2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성전에서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어 성전의 예배 시간에 온 가족과 더불어 집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하여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행 10:4, 31)고 말한다. 여기서 ‘기억하신 바’는 레위기가 말하는 소제의 ‘기념물’을 비유적으로 암시하는 제의적 용어이다. 고넬료의 구제와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은 이 행위가 성전 제사와 동등하게 여겨졌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세속 공간인 이방인의 집이 유대인의 성전의 거룩한 공간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본 베드로(행 9~23절)

저자는 지역적으로 지중 해변의 헬라화 된 읍바에서 베드로의 행적을 말한다. 사체의 가족을 만지는 무두장이 시몬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부류에 속한다. 그의 집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엄청난 이상을 보았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인 온갖 종류의 부정한 짐승들을 보았고(12절), 이어 “(이것들을) 잡아서 먹으라”(13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잡아먹다”란 용어는 제사장들이 행하는



제의적 행위를 함축적으로 의미한다. 베드로는 성전이 아닌 무두장이의 집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제의적 행위를 이루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음식규례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거절하였다(14절). 이 규례를 파기한 자는 하나님으로 이를 통해 베드로의 신학적 초점을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을 주신 분에게로 옮겨주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15절).

성령은 그에게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였다. 베드로의 꺼림과 메시지에 대한 저항은 반복된 신적 간섭(17, 19~20절)을 통해 순종으로 바뀌었다(20절). 베드로의 순종은 두 가지 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졌다. 하나는 신적 명령으로 성전 공간은 가정, 곧 집이란 공간으로 대체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찾아간 베드로(행 24-43절)

베드로는 신학적 변혁에 따라 행동하였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나”(28절), 신적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일은 당시 유대 크리스천들의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11:3; 15:5). 그러나 베드로의 변증을 들어보자. 그는 성령이 주도하는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자 곧장 신학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34~35절).

고넬료의 모든 집안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베드로(행 44-48절)

설교 중에 성령이 집안의 모든 가족에게 부어졌다(44절). 어느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예견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워하였고(45절)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들었다(46절). 이는 하나님이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어 새 신자가 되면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방인들을 자신의 백성에 포함시키는 환경을 보고 자신의 신학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꿈과 동시에 이방인인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증을 금하리요”(47절).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똑같이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의 축복에도 그들이 차별이 없다는 신학적 진리는 당시 유대인으로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신학적 혁신이었다.

이 기사는 베드로가 체험한 신학적 변혁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하신 것으로 여겨졌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집, 그것도 이방인의 집에 오셔서 복음의 문을 여셨다. 2) 초대교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된 공간은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가정집이었다. 3) 복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과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 확장되어진다.

새 시대, 새 교회

가정집에 모인 초대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회당이나 이방 신전은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없었다. 가정집은 초대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친밀하고 안정된 장소였다. 1세기 동안 가정집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삶을 형성하여 경제적인 하부구조로 선교사업의 근거가 되었다. 2세기 후반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으로 헌납하여 독자적 건물로 사용하였다. 구도가 변화되어 식당을 더 큰 회집의 홀로 바꾸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314년 밀란 칙령이 발표된 일 년 뒤 첫 성당(basilica)이 나타난다. 헌납되어 독자적 건물로 사용된 교회나 성당(basilica)에서 모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가정교회에서 모인 것과는 다르다. 지도력은 몇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거룩한 지도자 계급이 생겨난다. 교회 사역은 전형적인 제의가 되어 공동체보다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갔다. 서서히 가정교회는 건물 교회로 변해 갔다.

작금에도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건물'로 생각하여 교회생활을 잘하는 것은 좋은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들은 어떻게든지 교회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여겨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생활은 교회의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교회의 한 부분만을 강조한 셈이다.

조직체가 아닌 조직(지체)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마 16:17)의 모임으로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가정의 모임을 통해 머리되신 예수님의 지체이다(엡 1:23). 그 지체는 조직체(organization)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되어 서로 성장하는 지체, 곧 조직(organism)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지체로서의 교제'이다. 이제까지 초미의 관심은 조직이 아닌 조직체로서의 교회였다. 현재 우리는 그 한계를 맞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베드로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체험한 것처럼 교회를 건물(성전)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교회는 더 이상 건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의 공동체가 결코 어떤 건물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교회 건물이 기능적이며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말하려 한다.

이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닌 조직(지체)으로서 연구되고 구현되어져야 한다.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하는 임재로 인하여 활력을 얻어 살아 움직이는 백성들'이다. 신약에서 교회는 조직체나 제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교제,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교회건물을 짓는데 온 힘을 쏟게 하거나 교회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영적 생명을 나누는 지체로서 서로 돌보고 도와주는 역동적인 교제의 장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런 사역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작은 '변형교회'(Meta-church)로서의 가정교회이다.

새로운 전략

급변하는 현장 속에서 복음사역과 교회개혁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에 병행되어 교회 형태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교회를 건물개념으로 국한시켰을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현재의 구조 내에서 교회는 개척되기에는 너무 버거운 모습이 되어 버렸다. 목회자가 개척하면서 '건물=교회' 공식에 매였을 때 너무 큰 비용 때문에 쉽게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라도 성경이 말하는 원리적 개념과 이 개념을 심어야 할 토양으로서의 한국 현장을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교회를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는 처소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의 모임으로 보면, 혼란된 사역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변형된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교회를 쉽게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방전도, 문서전도, 전국적 규모의 대형집회 등의 방법이 어려워진 대신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전도가 새롭게 부각되는 이 시점에서 '가정교회'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개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회법상의 정치적, 행정적 처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서번트리더십의 현장

— 사랑의교회 EBM포럼

글 김원수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위원장



설립배경

EBM포럼은 사랑의교회에서 한국사회와 문화를 변혁하고자 하는 선교적 비전의 일환으로 2005년 5월에 출범한 리더십포럼이다. 사랑의교회가 EBM포럼을 하게 된 이유와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지도 계층에 대한 교회의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선교적 책임에 연유하고 있다.

현재, 사랑의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대부분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대한 지원과 돌봄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리더들에 대한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한

선교전략이나 대인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도층에 있는 리더들에 대한 선교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그들에게 다가가기에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EBM포럼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선교적 특징은 포럼이라는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비그리스도인 리더층들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포럼은 비그리스도인 리더와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게 된다. 포럼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와 교류를 통해서 포럼의 핵심 가치인 서번트리더십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포럼은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전문성과 영성을 가지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형성된 섬김의 정신을 이웃과 사회를 향한 돌봄과 봉사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나아가 포럼사업은 지역 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리더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형성하여 선교의 귀중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핵심가치

EBM포럼은 현재 200여 명의 멤버십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45% 정도는 비그리스도인 리더들이다. 포럼을 섬기는 스태프들은 약 25명 정도이고 핵심 실행위원들이 7명이며 사랑의교회 순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포럼의 운영은 철저하게 서번트리더십의 가치를 최대한 실천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대표도 하나의 멤버로서 특별한 권한을 갖기보다 실행위원들에게 위임하여 공동의 논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포럼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슬로건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세운다” 이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가치 속에는 서번트리더십의 핵심이 모두 녹아 있다. 서번트리더십은 사회를 변혁하고 그 중심에 있는 리더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하다. 이러한 리더의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그 한 계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삶과 가치의 변화를 특별히 주목한다.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비그리스도인 리더들을 향한 EBM포럼의 도전은 세 가지 핵심가치에 녹아 있다. 즉,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프론티어 리더십(frontier leadership), 멀티폴더 리더십(multifold leadership) 등 세 가지이다. 다윗 대통령을 연구하다 귀한 아이디어를 얻어 내부적으로 열띤 논의를 거쳐 포럼의 핵심가치로 선정하였다.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가치에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을,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격과 지식, 네트워킹을 필요로 한다.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시대를 변혁하고 리더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핵심가치로 포럼의 비전의 지향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프로그램

EBM포럼의 월례 정기모임은 한 달에 한번 모든 회원들의 만남의 시간이다. 이 두 시간의 조찬모임을 위하여 모든 스태프들은 긴장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영성을 위해 매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포럼의 전문성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 토론과정을 수없이 거친다. 전체 정기모임의 구성은 모든 순서가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스토리를 기획하여 진행되며 큐시트를 통해 주어진 시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강연은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목의 주제를 올리되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을 가능한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포럼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딱딱해지지 않도록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유머와 유희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특히 특별연주 시간을 배정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개월에 한번 강연으로서는 시간적 제한으로 회원간의 교제와 교류의 네트워킹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셀(cell) 모임, 즉 독서, 문화예술체험, 여행등산, 디카, 골프, 알기쉬운 경영,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셀 활동은 회원간의 교제와 교류의 장을 활성화시키고 포럼에 대한 로열티를 더욱 높여가는데 귀중한 역할을 한다. 더욱이 셀 리더는 총무와 더불어 셀 회원간의 섬김과 교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명의 회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복음화의 열매를 기대한다. 단기적인 열매에 대한 조급함은 절대 금물이다.

포럼의 핵심가치인 서번트 리더십을 모든 회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여 삶 속에 녹아들게 하는데는 상당한 인내심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와 가치관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과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트랙의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기본 과정으로 모든 회원들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정으로서, 성격테스트, 리더십의 기본이해, 행복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리더십의 기본과정을 다루고 있다. 또 하나의 과정은 회원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전문과정으로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통한 교육과 훈련,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인격과 품격을 고양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회원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EBM포럼의 모든 프로그램의 요체는 봉사단 활동이다. 회원들의 삶과 가치의 변화는 봉사를 통한 서번트 리더십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돌보는 삶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포럼에서는 몇 년간 인제 상남면과 자매를 맺고 결속아동돕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봉사단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은 비즈니스, 문화예술,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를 잘 통합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실행 원칙

EBM포럼의 모든 행사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포럼의 핵심가치는 서번트 리더십의 정신을 회원들의 삶과 비즈니스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있다. 포럼에서 지향하는 서번트 리더의 실천적 방법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서번트 리더는 한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매우 중시함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욕구에서 출발한다. 스텝 운영, 셀, 아카데미, 봉사단 등 모든 모임의 활동에서 서로를 섬기려는 욕구에서 동기가 부여된다. 이러한 동기가 사역자들 간에 고도로 협력적이며 상호의존적이며 결과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로 두루 돌리도록 노력한다.



자연으로 떠나자! 곰배령 관광



둘째, 포럼의 공동의 목표와 비전 아래서 개인이 아닌 모두가 승리하도록 힘을 불어넣는 것에 집중한다. 정치적 인 행동이나 이를 이용한 개인적인 승리를 경계한다.

셋째, 스태프나 회원들간의 모임들에서 다른 사람들, 특히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한다. 이와는 달리 말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경계한다.

넷째, 회원들의 가치는 회원들 각자의 재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계속 주지하도록 한다.

다섯째, 먼저 말하고 싶어하기보다 먼저 듣는 편을 택하고, 다른 회원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에 위압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섯째, 회원들은 서번트 리더로서 개인적인 신뢰와 존중을 통해 회원들 사이의 가교를 건설하고, '전체'를 위한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EBM포럼 사역은 사랑의교회라는 여러 가지 특수한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회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헌신적인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사역의 필요성으로 공감하면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믿는 성도들간의 교회내의 사역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현장 사역이라는 점이다. 포럼 사역은 고도의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훈련된 스태프들이 필수적이다. 포럼에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피한다. 물론 회원들은 본 포럼이 사랑의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포럼에서 서번트 가치가 실현되는 한 그 자체로서도 충분히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통 교회 음악을 고집하는

서울바하합창단



지휘자 김명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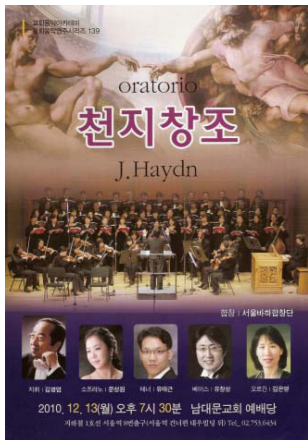
연세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업
오스트리아 빈 음악원 수학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추계예술대 교수 역임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 역임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역임
연세대 교회음악과 교수 역임
새문안음악교육원 원장 역임
현) 교회음악아카데미 대표
현)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현) 서울바하합창단 지휘자
현) 남대문교회 시온찬양대 지휘자

서울바하합창단은 교회 음악 지도자들과 애호가들이 오라토리오, 칸타타, 미사, 모테트 등 교회 음악 작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연주하고자 1990년 10월 현 지휘자인 김명엽 교수에 의해 창단되었다.

창단 첫 해에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비롯하여 수 많은 바하의 '교회칸타타', 헨델의 '메시아',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모차르트의 '대관미사', '크레도 미사',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베토벤의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성 바울', '엘리아' 등 대작 오라토리오와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구노의 '장엄미사', 로씨니의 '스타브 마테르', 스테이너의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드보야의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 등을 연주하였다. 코리아심포니 정기연주회에 수차례 협연한 것을 비롯하여 SBS 주최 '한일 합창연주회', CBS 기독교 방송 개국기념 '부활절음악회', 문화부 주최 '종교음악제'와 새사람선교회 주최 '사랑과 영혼' 음악회, 베토벤의 '코랄 환상곡'과 쌍용그룹 송년음악회 '베토벤 제9교향곡'연주에도 출연하였다.

한국인 교회 음악작곡가 시리즈 연주로 박재훈, 구두회, 김두완, 이영조, 문성모, 주성희, 한태근, 권덕원, 이기경 등의 작품 발표회를 열었고, 교회음악아카데미 주최의 모범예배인 '루터교 의식에 의한 예배', '국악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 너 있었는가' 등의 찬송으로 드리는 음악예배와 '부활의 메시지', '세계성만찬주일 모범예배'와 연세대 교목실 주최 '재에서 불꽃으로' 모범예배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독교 방송의 찬송가 음반 취입을 비롯하여 찬송가 전집인 '생활 속의 찬양', 구노의 '장엄미사', '부활의 메시지' 등 그 동안 취입한 음반도 20여 장에 이른다.

합창단은 수시로 작은 교회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순회찬양을 하고 있으며, 매년 12월24일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가져왔다. 연 2회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교회음악아카데미 주최 교회음악세미나에 참가하여 교회 음악의 보급과 사회봉사는 물론 나아가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통 교회 음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요연주

- 1990. 12. 바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연주
- ⋮
- 2006. 10.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루크추크 연주
- 2007. 4. 페르글레지/ '스타벳마터' 연주
- 5. 포레/ '레퀴엠' 연주
- 2008. 4. 헨델/ '메시아' 1부, 2부 중간 전국연주
- 2009. 7. 몽골 울란바토르 연주
- 8. 김두완 추모음악회
- 2010. 3. 드보야/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
- 6. 멘델스존/ '사도바울' 제2부 연주
- 9. 김희보 작시 성가연주회
- 12.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소규모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음악의 진수를 소개하는 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합창단을 창단한 김명엽 지휘자는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인 교회 음악이 연주되지 못하고 점차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교회 역사에서 사랑받고 불렀던 고전적인 오라토리오와 합창곡들을 발전·계승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아가 찬양을 통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다. 현재 단장으로는 박래창 장로(소망교회, 한국장로신문사장, 전국장로회연합회장 역임, (주)보창상사 대표이사)가 맡고 있으며, 부단장으로는 김승욱(중앙대 교수,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서울바하합창단은 해외 연주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에는 일본 동경, 동승산으로 연주여행을 다녀왔으며, 2006년 10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이루크추크, 그리고 2009년 7월 25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 초청으로 필하모니 공연장에서 해외 연주를 했다.

합창단의 연습은 매주 월요일 오후8시부터 9시30분까지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위치한 한강교회에서 하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단원은 60명 정도인데 이들 중 약 70% 정도가 음악대학 졸업자이다. 서울바하합창단을 후원하거나 동참하기를 원하면 홈페이지 <http://cafe.daum.net/bachchoir> 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성악전공자의 경우 수시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전공자들에게는 1년에 한번 씩 있는 단원모집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다.

서울바하합창단은 2011년 1월부터 기독교학문연구회 교회음악분과로 가입했습니다. 정통 교회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적극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포럼 개최

2010년 12월 13일 오후 2시 강남교회(담임목사 송태근)에서 기독교 세계관 목회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특강과 목회사례 발표, 토론의 순서를 갖고 이후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목회자 포럼을 더욱 활성화하여 많은 교회들과 세계관 운동을 함께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사회, 실행위원회 신년 첫 모임

2011년 1월 3일 오후 6시 사무국에서는 신년 첫 실행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1월 7일 오전 7시 30분에는 이사회도 소집되어 총회를 앞두고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의하였으며 2010년 결산보고 및 예산에 대한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헌신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송년회 및 영상캠프

2010년 12월 18일 오후 5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에서 조출한 송년회를 하였습니다. 강사진과 스텝, 중기과정 4기 수강생들이 함께한 송년회에서는 그동안의 수업 내용을 점검해 보면서 의견 수렴과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충북 괴산의 웨스트가나안호텔에서 4박5일간 영상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회 안내

2011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오니 대상 회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1년 1월 17일(월) 오후 3시

장소 : 중앙성결교회 성봉예배실(찾아 오시는 길 : 약도 참조)

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11-1번지(T : 02-765-1511~4(내선 1번))

대상 : 세계관동역회 이사, 감사, 임원(각 위원장 및 분과장)

각 지부장, 추천된 대의원 후보, 각 부서 부임원 및 위원

전임 사역자, 동참을 원하는 정회원

의결 안건

- ① 2010년 예산 및 결산 승인
- ②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승인
- ③ 제기된 주요 안건(예정)

보고 및 특별순서

- 2010년 주요활동상황 영상보고
- 임원 임명장 수여
- 만찬(친교)



캐나다VIEW 입학설명회 개최

캐나다의 밴쿠버에 위치한 기독교세계관대학원 과정 VIEW의 입학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2011년 1월24일 (월) 오후 7시

진행 : 양승훈 VIEW 원장

장소 : 사무국(서울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A동 402호) 오시는길

문의 : 02-754-8004/010-9146-0946 정은희 간사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을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 www.view.edu / www.twu.ca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비 및 후원(2010.11월)

개인회비

1구좌 강은정,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길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상욱, 김은하, 김일환, 김정명, 김정섭, 김정준, 김중규, 김철수, 김현승, 남상수, 남서희, 남진, 마민호, 박기연,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배무련, 소종화, 손영일, 송시섭, 송정은, 신기혁, 심정하, 안용준, 양숙, 양영태, 유창은,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명진, 이민화,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인수, 이인주, 이한기, 이향숙, 임선제, 임춘택, 임형준, 임재영, 장남기, 장현일, 전정진, 전충국, 정범채, 조은아, 조인진, 조창근, 조혜경, 주경식, 최광수, 최용준, 최한빈, 태운, 황의서, 황나란, 허재일, 현주, 홍성민, 홍승기,

2구좌 권민규, 김경희, 김남국, 김성상, 김정일, 김정호, 김영완, 김세령, 김세완, 김영애, 김영화, 김은혜, 김홍섭, 류화원, 임지연, 유건호, 유영준, 유지황, 전성구, 정현주, 조용현, 조현철, 주성철, 전태수, 오혜정, 유해무, 이윤석, 한혜실, 황혜정, 허찬영, 홍미경,

3구좌 김선화, 최동원, 4구좌 강대훈, 김옥태, 김용식, 김혜경, 노용환, 명윤수, 박한, 변우진, 배은경, 우시정, 이명희, 이대환, 이현정, 최연숙, 6구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종락,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조무성, 오의석,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우병훈, 장수영, 정동섭, 정은애, 조무성, 추태화, 황정진

7구좌 김미경 10구좌 김성락, 송인규, 오형국,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20구좌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윤완철, 전광식 24구좌 이재율, 30구좌 양승훈 100구좌 김승욱 200구좌 김태황

학생회원 구재형, 김성권, 김태양, 김창현, 김찬호, 김혜숙, 박경준, 조성진, 이수정, 한인관, 황정현,

후원기관_단위(만원)

개봉교회(5) 국군중앙교회(20) 군산성광교회(5) 남서울교회(10) 남서울은혜교회(10) 다니엘새시대교회(10) 두레교회(3) 백석정신아카데미(100) 100주년기념교회(30) 사랑의교회(70) 산정현교회(10) 삼일교회(5) 서울영동교회(20) 성덕교회(10) 성덕중앙교회(5) 새로남교회(10) 샘물교회(10) 수영로교회(20) 신석교회(10) 온천제일교회(10) 언약교회(10) 은혜로교회(10) 자운교회(10) 참빛교회(10) 호산나교회(10)

회원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에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일정의 회비 납부자)에게 드리는 혜택

1.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 <Worldview>와 학술지<신앙과 학문>또는 <통합연구>를 보내 드립니다.
2. 석사 이상 회원분들은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원으로 자동등록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각종 학회 및 세미나 발표논문과 칼럼,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4.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5. 연회 CUP 출판사의 신간을 받아보실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6. 학문 연구에 뜻이 있으신분은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7. 회비(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_1 구좌 : 5,000원

일반회원 : 2구좌(1만원) 이상

학생회원 : 1구좌(5천원) 이상

임원 : 6구좌 (3만원) 이상

이사 : 20구좌(10만원) 이상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정회원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CMS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FAX(0303-0272-4967)로 보내주시면 사무국에서 처리하여 드립니다.

CMS 출금이체 신청서

담당	책임자

앞

신 청 인 정 보			
상 호 (성 명)		납 부 자 번 호	
전 화 번 호		(고 객 번 호)	
휴 대 전 화		출 금 일 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이 메 일			미결제시 출금일 이후 재청구함.

계 좌 정 보			
(<input type="checkbox"/> 개인 /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은 행 명	은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 기재)
월납입액	금 _____ 원	(₩ _____)	

【 CMS 출금이체 약관 】
<p>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야 합니다.</p> <p>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p> <p>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p> <p>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준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p> <p>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p> <p>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여 출금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p> <p>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정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p> <p>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p>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
<p>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p>

위 CMS 출금이체 약관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

※ 신청자 유의사항 ※

-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인강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강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cmca
Christian Media &
Contents Academy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5기 모집안내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국민일보, CTS, CGN-TV 등 주요언론단체와 협력하여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1인 미디어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개강 2011년 4월 2일 (교육기간: 2011. 4. 2~2011. 8. 27)

기독교세계관 강좌	미디어 이론 강좌	영상실습 강좌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과 소명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기독교세계관과 역사관 북한과 통일문제 기독교세계관과 생명윤리 창조론과 진화론, 지적설계	기독교언론인의 자세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유비쿼터스시대 미디어의 성경적 의미 설득커뮤니케이션 촬영이론 편집이론 뉴스원고 구성	영상제작 기획과 스토리텔링 영상연출(앵글,구성,콘티뉴이티 기타) 방송뉴스 조별제작 스튜디오 실습 편집이론 과 실습 국민일보 필드트립 영상캠프(5박 6일)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구성

- 손봉호(KBS객원 해설위원), 이인용(전MBC뉴스 앵커), 조용래(국민일보 논설위원) 등 전 현직 언론실무진과 각 전공별 교수진들의 명강의
- 교육협력기관(국민일보, CGN-TV, CTS)을 통한 실제적 교육과 필드트립
- 성적우수자는 취업추천서 발급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류 다운로드-이메일 접수-서류심사-면접일자 개별통보-합격발표

접수기간 2011년 3월 2일(월)~3월 20일(일)

지원자격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면접전형 3월 20일 이후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3월 28일

교육협력기관

국민일보 CGN-TV CTS 기독교TV

수강비: **1,200,000원** >>> 등록금: **200,000원** (본 프로그램은 수강비 전액 외부후원으로 등록금만 납입)

* 소수정예 교육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 선발하므로 마감일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cmca.or.kr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

문의: 02)754-8004 cmca@worldview.or.kr